기억과 증언

YTP〈청사회(靑思會)〉 **송철원**

YTP〈청사회(靑思會)〉

송철원(宋哲元)*
(사)현대사기록연구원

1. KKP(구국당), MTP(문맹퇴치회), YTP(청사회)[1)]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본의 압제를 벗어난 이래 이 땅에는

---

* 본고(本稿)의 필자인 송철원(宋哲元)은 1942년 4월 3일생으로 1961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원사찰조사위원회를 구성, 1964년 4월 23일 '학원사찰 성토대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보부에 의한 학원사찰과 YTP의 정체를 폭로하였다. 5월 20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조사(弔辭)를 낭독한 후 5월 21일 새벽 중앙정보부원에 의해 납치, 고문당하여, 6월 3일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1965년 9월 16일 한일협정 비준반대시위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1976년 박정희 독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건국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직된 바 있다. 현재 (사)현대사기록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1) 필자는 1964년 4월 중순경 YTP 회원인 중앙대생으로부터 YTP 문건들을 입수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대학교의 『대학신문』, 문리대의 『새세대』 등 여러 매체에 그 내용을 은밀히 제공, 공개토록 했다. 1964년 6월 3일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필자는 YTP 문건들이 중앙정보부에 압수당하는 것을 막고자 문건 전체를 『동아일보』 김원기(金元基) 기자에게 맡겼었다. 이 문건들을 김 기자가 캐비닛에 넣어둔 채로 『동아일보』를 퇴사하여 분실된 것은 대단히 아쉽다. 그러나 김 기자는 이 문건들을 토대로 "YTP〈청사회(靑思會)〉"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동아(新東亞)』 1964년 10월호에 게재하여 오늘날 필자가 이 글을 쓰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수많은 청년단체들이 부침을 거듭했다. 이들 단체들 가운데에는 더러 나라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활동한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허황한 구호를 앞세워 권력에 기생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YTP[2]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60년의 4·19혁명(이하 '4·19'로 약함) 후 실시된 총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모여 1960년 8월 6일 결성한 비밀단체가 KKP(구국당)[3]였고, 1961년 5·16군사반란(이하 '5·16'으로 약함) 후 중앙정보부와 연결되어 MTP(문맹퇴치회)[4]라는 비밀 프락치조직으로 변신하였다. 1963년 10월 15일의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청년조직으로 다시 변신하기 위해 1963년 7월 25일 결성대회를 갖고 공개적으로 등장한 것이 YTP(청년사상연구회: 약칭 청사회)였다. 그러나 그 전신(前身)이 비밀단체였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야당과 학생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1) KKP(구국당)(1960년 8월 6일~1961년 5·16 이전)

1960년 8월 3일 밤 남태령 고개 동쪽 관악산 산골짜기에 2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 이 청년들은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거에 출마한 사회대중당 영등포 을구 유병묵(劉秉默) 민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흑석동[5] 주변의 대학생들로,[6] 흑석동에 있는 은로(恩露)초등학

---

2) YTP는 '청년사상연구회(靑年思想硏究會)'의 영문 Youth Thought Party의 약자로 간단히 '청사회(靑思會)'라고도 한다. 이 명칭은 일본의 극우단체의 이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1972년 5월 24일자 『매일경제신문』 4면, "이것이 일본이다(91)-우익운동").

3) KKP의 'KK'는 '구국(救國)'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의 이니셜이고, 'P'는 '당(黨)'을 뜻하는 Party의 이니셜이다.

4) MTP의 MT 또한 '문맹(文盲)'의 '문'과 '퇴치(退治)'의 '퇴'를 각각 영어로 표기했을 때의 이니셜이고 P는 당(黨)'을 뜻하는 Party의 이니셜이다.

5) 당시 흑석동은 영등포구였다.

6) 사회대중당(社會大衆黨)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13일 창당한 혁신정당으로 5·16군

교 출신이 다수였다고 한다. 이들이 밤을 새며 토론한 결과 얻은 결론은 장차 정당 결성을 목표로 하되 우선 우익 비밀단체를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1960년 8월 6일 오후 6시 참가 내약자(內約者)[7] 40여 명 전원이 참석하여 후일 YTP로 변신하는 초기 조직인 KKP(구국당)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밤새워 진행된 결성대회에서 비밀결사를 조직원칙으로 결정하고 당수에는 후일 YTP의 총회장이 되는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조정찬(趙正燦)을 선출하였다. KKP 회원들은 ①생명을 걸고 비밀을 지킨다, ②생명을 걸고 명령에 복종한다, ③당을 위하여 일체를 바친다[8]는 내용의 입당서약을 하였고, 정체를 숨기기 위해 대외활동에는 '대한구민계몽회(大韓救民啓蒙會: 약칭 계몽회)'[9]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KKP 당수 조정찬은 관악산 남태령 고개 소재 4천여 평의 사유지를 당에 기증하였다.[10] 당원들은 이곳에 공동 작업으로 벽돌로 된 막사를 건립하여 비밀교육·훈련장 및 비밀집회장소로 삼아 당원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야영도 하고 야간 산악훈련도 했다.

KKP는 윤재욱(尹在旭)을 통해 이범석(李範奭) 및 조경규(趙瓊奎)와

사반란이 일어나 1961년 5월 22일 해체되었다. 진보정당인 사회대중당의 선전위원장이었던 유병묵(劉秉默)의 선거운동을 돕던 젊은이들이 극우비밀단체를 조직할 모의를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목이다. 여운형(呂運亨)의 근로인민당 청년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유병묵은 5·16군사반란이 일어나자 '민족일보 사건'으로 10여 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유병묵은 1988년 7월 13일 강원도 명주군 퇴곡리 자택에서 산책 중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휘말려 향년 78세로 사망했다.

7) 이들은 조직에 가담하는 것에 사전에 동의한 사람만을 결성대회에 참여시켰다.

8) 후일 YTP 행동규범의 기본원칙은 거의가 KKP 시절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9)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당시 경제상황이 곤궁했고 문맹이 많았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조직 명칭에 '구민(救民)', '계몽(啓蒙)', '문맹퇴치(文盲退治)'라는 말을 활용하였다. 실제 1960년 12월 29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투표용지에 직접 써넣는 기명투표제를 채택했는데 투표율이 36.4%에 불과했다.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은 날씨 탓도 있었지만 문맹자가 많았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10) 조정찬은 흑석동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가 기증한 훈련장 터의 사진도 남아 있다(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1964), 10월호, p.177).

관계를 맺었다. 1960년 초가을, 윤재욱의 주선으로 조정찬과 KKP 간부들이 이범석을 만나 KKP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이범석은 즉석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호칭과 암호연락방법 등에 대한 충고의 말까지도 했다고 한다. 이범석은 지방간부 야영훈련 때 사냥한다는 명분으로 관악산 훈련장까지 비밀리에 찾아와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강연을 하기도 했고, 1960년 10월에는 자신의 회갑 잔치를 그만두고 20만 환을 KKP에 지원했다. 윤재욱도 여러 차례 훈련장에 찾아와 '회의진행법' 이나 '회의파괴법' 등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하는데, 다음은 윤재욱이 『동아일보』 김원기 기자에게 한 증언이다.

> '대한구민계몽회'라고만 알았지 그것이 비밀단체인 것은 몰랐다. 관악산 남태령 고개에 가서 회의진행법에 대해 강의했던 것은 사실이나 선서를 한 일은 없다. 이범석 장군을 내가 소개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나보다 조경규 씨가 더 잘 알 것이다. YTP라는 이름은 금시초문이다. 조정찬 등 이전 KKP 간부들이 공화당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얘기는 근래에 들었다.[11]

이범석은 자신이 설립한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약칭 족청(族靑)) 부단장을 역임했고, 당시 참의원이었던 안호상을 KKP와 연결시켜 주었다. 안호상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참의원 세비(歲費)의 일부라며 격려금을 주는 등 KKP를 후원하여 이범석과 함께 KKP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1960년 12월에 있었던 네 차례의 지방자치 선거[12]는 KKP에 조직 운

---

11) 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 10월호(1964), p.181.

12) 1960년 12월 12일에는 서울특별시시의원·도의원 선거가, 12월 19일에는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가, 12월 26일에는 시·읍·면장 선거가, 12월 29일에는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가 치러졌다.

영을 위한 자금줄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들은 극빈아동 교육, 양로원 설립 등 소위 '구민(救民)'을 내세워 영등포구에서 시의원으로 나설 인사들로부터 찬조금을 걷어 일부를 KKP 조직자금으로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선거운동을 미끼로 시의원 입후보 예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이중으로 돈을 받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주저함이 없이 행했다.

KKP는 이범석과의 접촉을 계속하는 한편, 윤재욱을 통해서 구자유당계(舊自由黨系)의 대표 격인 조경규와의 접촉에 성공하였다.[13] 이후 조경규는 KKP의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찬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KKP 간부들에게 구자유당 재산의 내역을 밝히고 재산을 처분하면 상당액을 KKP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한다.

KKP는 각 대학 조직과 시(市), 도(道) 조직을 마치고 군(軍) 조직도 만들려 했으나 성과 없이 초기조직을 완료했다. 이때의 중앙 부서와 책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14]

◀ 당수 조정을(趙正乙)(가명·당시직업 미상)
◀ 총무 김(金) 모(당시 고대 정외과)
◀ 재정 김(金) 모(당시 서울고 졸)
◀ 조직 김(金) 모(당시 숭문고 졸)
◀ 정보 김(金) 모(당시 한양대 법과)
◀ 훈련 박(朴) 모(당시직업 미상)
◀ 사업 이(李) 모(당시 국민대 졸)
◀ 선전 윤(尹) 모(당시직업 미상)[15]

---

13) 윤재욱의 주선도 있었지만, 조정찬이 조경규와 종씨(宗氏)로 사적으로 아는 사이라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한다.

14)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일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여겨 인용한다.

15) 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 10월호(1964), pp.179-180.

이범석과 KKP와의 관계는 5·16으로 단절되었다. 5·16 직후 KKP는 진로를 의논하려 그를 찾아갔으나 '면회사절'로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도 KKP와 관계를 유지하여 KKP가 변신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조경규였다. 다음은 조경규의 증언이다.

> YTP의 전신(前身)인 KKP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4·19 이후 민주당 정권 시절의 사상적인 혼란 상태는 반공운동을 해오던 나로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평소에 내가 잘 아는 반공에 투철한 몇 청년이 찾아와 KKP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청하기에 승낙하고 사실상 협조를 해왔었다. 나와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협조한 사람 중에는 이범석 장군과 윤재욱 씨 등이 있다. 그때 KKP는 주로 반공과 민족주의가 그 사상의 주류였으며, 이중조직 비밀결사로서 각 대학에 세포를 가지고 최소한 한 학급에 1명 이상씩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들이 상당한 조직을 가졌다는 것은 학생간부선거 때 KKP가 미는 사람이면 십중팔구 당선되는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본, 대만의 극우단체와 유대를 맺기 위해 1961년 6, 7월경에 대표를 보낼 계획도 있었으며, 또 5·16 나던 해 5, 6월경에는 전국조직을 총동원하여 불여의(不如意)하면 혁명까지도 각오하는 시위운동을 전개하려다가 5·16혁명의 돌발로 좌절되었었다.
>
> 내가 알기로는 민주당 정권 때 이범석 장군이 한번 '큰소리'를 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KKP를 믿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KKP에 대해서는 윤재욱 씨가 나보다 잘 알 것이다. KKP를 이범석 장군 쪽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바로 윤 씨이며, 윤 씨는 거의 날마다 KKP와 접촉을 했다. 이 장군이 남태령 산골 훈련장에 가서 직접 교련을 시킨 적도 있다.[16]

KKP는 이후 변신하는 MTP, YTP의 세 단계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

16) 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 10월호(1964), p.182.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라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양성한 자생력을 토대로 하지 않고 지도자 몇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취약점을 보이기 마련이다. 즉 지도자가 사라지면 전체 조직이 갈팡질팡하는 취약점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KKP가 그러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KKP를 지원하던 이범석, 안호상, 조경규, 윤재욱 등 소위 '저명인사들'의 처신이었다. 이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인격으로 청년들을 규합하여 정치세력화하려 하지 않고, 몰려온 철없는 젊은이들을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쌓으려 하였으니, 이는 파렴치한 속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16 후 이들의 처신은 더욱 가관이었다. 이범석, 안호상은 KKP와의 연락을 끊고 묵묵부답이었다. 비밀조직이 세상에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자, 윤재욱과 조경규는 서로 상대방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5·16 후까지 관심을 보인 것은 조경규 혼자였지만, 그도 KKP를 정보조직과 연결시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2) MTP(문맹퇴치회)(1961년 5·16 이후~1963년 7월 24일)

김종필은 5·16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창설한 중앙정보부를 통하여 재건동지회라는 공화당 사전조직을 비밀리에 만들기 시작하였다. 1962년 1월 재건동지회 결성에 착수하여 그 준비작업이 한창이던 1962년 3월 16일, 군사정권은 '정치활동정화법(政治活動淨化法)(약칭 정정법)'을 공포하여 4천여 명에 달하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1962년 5월 서울과 지방에 재건동지회를 결성하고, 훈련과 조직을 마친 후 우여곡절 끝에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이 창당되었다.

좌절 직전의 KKP가 조경규의 도움으로 MTP, 즉 '문맹퇴치회(文盲退治會)'로 변신하여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 5·16 후 급변을 거듭했던 이 시기였다. 조경규가 군사혁명위원회 정보분실을 거쳐 중앙정보부

원이 되는 이(李) 모 대위[17]와 KKP와의 접촉을 주선한 것이다. 이에 대한 조경규의 증언이다.

> 5·16이 나고 나의 주선이라기보다 내가 인연이 되어 KKP 간부들과 이(李) 모 대위가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 군은 바로 내가 데리고 있던 청년이다. 특히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로 한다는 혁명정부의 공약으로 보아 '반공'을 내세우는 KKP와 반공운동 전선에서 협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실책이었었다. YTP가 바로 KKP의 후신(後身)이라는 것은 얼마 후 YTP 문제가 신문에서 크게 떠들어댈 무렵에야 알았다.[18]

이 모 대위가 군사혁명위원회 정보분실 출신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KKP가 중앙정보부와 처음 연결된 시기는 1961년 늦여름쯤부터인 것 같다. 그 후 중앙정보부에 기생하는 MTP로 변신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공화당 비밀 사전조직인 재건동지회의 출발과 대체로 일치한다. 5·16 초기에는 무시당하던 KKP가 정보당국의 눈에 띄어 MTP로 변신하고, 결국 YTP라는 등록단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KKP의 조직원이 주로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청년 비밀결사였다는 점과 이미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KKP 간부들은 조경규의 집에서 이 모 대위와 자주 회합을 갖고 군사정권에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19] 이들의 논의가 안가(安家)를 옮겨가며 진행된 것으로 보아[20] 상당한 기간 동안 밀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후

---

17) 이(李) 대위라는 사람의 이름은 알려진 바 없다.

18) 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 10월호(1964), p.183.

19) 조경규가 이 논의에 언제까지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조경규의 증언에 MTP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MTP로 변신하기 이전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20) 이에 대한 사진 기록으로는 KKP가 5·16 후 중앙정보부와 관계를 갖기까지 사용한 안가(安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KKP는 이 모 대위의 지시에 따라 2천만 환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대위는 KKP의 '지도위원'으로 취임하여 KKP를 장악하였다.[21] 이(李) 대위는 KKP를 장악하자 이름을 '문맹퇴치회(文盲退治會)', 즉 MTP로 이름을 바꾸고, 이른바 '5·16군사혁명 공약'을 MTP의 공약으로 선언하여 "마지막 운명을 건 혁명과업 수행에 최전위대가 되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MTP 회칙에 규정된 '지도위원' 이(李) 대위의 권한은 회장인 조정찬에 못지않을 정도로 막강한 것이었다. '지도위원'은 MTP 회원의 정보활동, 운영자금, 신분보장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국조직의 정보사찰활동을 총괄하고 있었다. '지도위원' 이(李) 대위의 권한이 막강해짐에 따라 회장인 조정찬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 끝에 이 대위가 물러났다. 그 대신 역시 중앙정보부원인 김(金) 모[22]가 '지도위원'으로 취임하였다. MTP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월 경상비가 50만 원에 달하였고, 지방조직확장비, 독찰비,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수시로 지출되었다 한다.

이처럼 5·16 이후 KKP가 중앙정보부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MTP로 변신하자 회원들은 정보활동을 통해 동료학생들을 첩보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들은 서울시내 9개 종합대학, 37개 단과대학과 각 지방대학에까지 조직을 확대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원사찰행위를 자행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의 동태(動態), 서클활동, 군사정권

家)의 사진(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 10월호(1964), p.178)과 중앙정보부 이 모 대위와 관계를 맺은 후에 사용하던 안가(安家)의 사진(앞의 책, p.179)이 있다.

21) 중앙정보부원인 이 대위가 MTP의 '지도위원'인 이상 MTP가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보부와 연결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앙정보부는 국가기관이고 MTP는 하부 사조직이었던 관계로 이 대위 윗선에는 누군가 있었을 테고 어떤 형태로든 의사전달 경로도 있었을 테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증언도 이제까지 없다.

22) 김 모는 예비역 장교였다 하는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 모는 MTP 회원의 정보교육을 맡은 적이 있던 인물로 언제 지도위원에 취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에 대한 반향 등 다방면에 걸친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또한 학생회장 선거에 개입하여 회원을 출마시켜 당선시키거나, 특정인의 선거를 돕거나 방해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서클을 파괴하기도 했다.[23]

3) YTP(청년사상연구회)(1963년 7월 25일 이후)

민주공화당은 1963년 10월 15일의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朴正熙)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년조직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된 청년단체가 필요한데 그런 필요에서 만든 것이 YTP였다. MTP(문맹퇴치회)라는 비밀단체 이름 대신 청년사상연구회(청사회)[24]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25] 1963년 7월 25일 결성대회[26]를 갖고 MTP(문맹퇴치회)가 YTP(청사회)로 이름이 바뀌어 공개적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비밀단체라는 태생적 한계에 막혀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1963년 8월, 민주공화당이 청사회를 공식 청년단체로 내세우려 하였지만, 이 단체의 성격을 놓고 민주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야당의 공격도 있고 하여 결국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그 후 1963년 10월 5일 야당인 민정당(民政黨) 대통령후보인 윤보선(尹潽善)이 선거유세에서 YTP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것을 시작으로 공격 표적이 됨으로써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야당의 공격이 있었음

---

23) 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 10월호(1964), p.190.

24) 결성대회 때는 'YTP'라는 영어 명칭을 쓰지 않고 '청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청사회'와 'YTP'를 혼동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25) YTP는 MTP를 변명(變名)한 단체에 불과했다. 즉 기본적 성격 면에서 YTP=MTP였다.

26) YTP가 '청사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도된 것은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1963년 7월 25일 오후 2시 경기도 가평군에서 버스가 강물에 추락한 사고가 났는데 "서울에서 청사회의 결성대회에 참석한 후 돌아오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보도했다(『경향신문』, 1963/07/26, 7면, 『동아일보』, 같은 날짜, 7면).

에도 YTP는 박정희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끝까지 참여하였다.

YTP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듬해인 1964년 4월이었다. 3월 24일 학생들이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시작한 후 4월 들어 학생들의 시위는 연일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4월 8일을 시작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시위주동 학생들에게 불온문서, 편지, 100달러짜리 지폐 등이 들어 있는 정체불명의 괴소포(怪小包)가 연이어 배달되는 사건이 일어나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정보기관에 의한 학원사찰에 대해 야당과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와중에 YTP의 존재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 YTP의 몰락[27)]

1) 야당과 언론의 공격

1963년 8월, 민주공화당은 대통령선거를 위한 공식 청년단체로 청사회를 내세우려 하였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 반발에 부딪히고[28)] 언론의 비판[29)]에 직면하였다.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1963년 8월 17일 고

---

27) 이 부분을 정확이 이해하려면 당시 야당과 언론의 한심한 자세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한다. 1963년 7월 25일 결성 될 때의 명칭은 청사회(청년사상연구회)였고, 10월 5일을 기점으로 야당과 언론은 YTP라는 명칭으로 공격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YTP와 청사회가 같은 단체라는 것을 야당과 언론이 모르고 있었다. 이 둘이 같은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인 1964년 4월 17일 엄민영(嚴敏永) 내무장관이 국회에서 밝혔을 때였다(『경향신문』, 1964/04/17, 1면).

28) 『동아일보』, 1963/08/16, 1면; 『경향신문』, 1963/08/22, 2면.

29) 『동아일보』 1963/08/17, 3면 〈정가산책〉.

려대학교 교정에서 5개 야당이 참여한 '시국대강연회'가 열렸는데, 이 강연회에서 민주당 간사장인 조재천(曺在千) 의원은 청사회를 도마 위에 올렸으며,[30] 8월 30일 김대중(金大中) 민주당 대변인은 청사회 등의 선거운동금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공표할 것을 박정희에게 요구했다.[31]

하지만 박정희 진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에서 1963년 9월 28일 '전국청년단체총연맹'이라는 단체를 급조(急造)하고 친여단체를 단일화한다는 명분으로 청사회를 그 산하단체로 끼워 넣었다. 이에 대한 보도[32]를 보면 급조된 이 단체의 회장이 육사8기생인 하상연이라는 점이 뭔가 이상한 냄새를 풍긴다. 김종필(金鍾泌)과 김형욱(金炯旭)이 육사8기생이고 이들이 중앙정보부를 장악하지 않았던가?

정체불명의 단체까지 동원하는 꼼수를 써서 비호했다는 것은 박정희 진영의 청사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해주고 있다. 그것은 당시에 긴박하게 돌아가던 대통령선거가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야당의 대응이 미지근 하자, 청사회는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결성대회를 명분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10월 10일에는 제주도지부 결성대회가, 10월 13일에는 강원도지부와 전라남도지부 결성식이 거행되었다.[33] 애당초 야당이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

30) 『경향신문』, 1963/08/19, 2면.

31) 『동아일보』, 1963/08/30, 1면.

32) 『경향신문』, 1963/09/30, 1면.

33) 『동아일보』, 1963/10/14, 7면.

2) 대통령선거(1963.10.15)

1963년 10월 5일 민정당(民政黨)의 윤보선(尹潽善) 대통령후보는 남산공원 야외음악당에 모인 15만 명에 달하는 청중에게 한 연설에서, "YTP라는 각 대학에 만들어진 비밀결사는 명령복종에 생명을 걸 것을 서약했고 폭로하면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조직은 무엇에 쓰는 조직인가?"라고 하며 YTP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34] 최초로 YTP가 거명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10월 11일 김영삼(金泳三) 민정당 임시 대변인이 "각 대학 내에 YTP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박정희 씨의 당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폭로하고, YTP 조직의 전모를 공개하였다.[35]

불과 15만여 표 차이로 박정희에게 패배한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윤보선과 김영삼 등의 야당과 언론은 YTP에 대해 더 파헤쳐서 공격했어야 했다. 야당은 박정희의 남로당(南勞黨) 경력에 지나치게 집착한 사상논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김형욱 중앙정보부의 치밀한 정치공작에 신경을 썼어야 했다.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YTP에 대한 제보가 YTP 총회장인 조정찬의 최측근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윤보선과 김영삼은 제보자에게 더 귀를 기울여 이 단체의 움직임을 원천봉쇄했어야 했다. 야당이 어설프게 공격하는 바람에 YTP는 '독수리 작전'이라는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했다.

비밀조직인 YTP의 존재를 윤보선과 김영삼에게 알린 것은 오성섭(吳聖燮)이었다. 성균관대학교 출신으로 6·3동지회 사무총장을 지낸 오성섭이 필자에게 한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당시 오성섭은 현재 부인인 조영란[36]과 사귀고 있었는데, 조영란은 YTP 총회장 조정찬의

---

34) 『동아일보』, 1963/10/05, 호외(號外) 2면, 〈민정당 연설요지〉.

35) 『조선일보』, 1963/10/12, 1면; 『경향신문』, 같은 날짜, 2면.

36) 조영란은 당시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여동생이었다. 앞에서 말한 바처럼 조정찬은 관악산 인근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YTP 훈련장 및 비밀집회소로 삼았는데, 오성섭은 훈련장에 가서 YTP 구성원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 실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이 괴이한 집단이 공식단체로 등장하여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그 존재를 야당에 제보하기로 결심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YTP 본부는 서울시 경찰국이 있던 건물 건너편 남대문시장 쪽의 빌딩에 '청사회중앙총회(靑思會中央總會)'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었다.[37] 당연히 이 YTP 본부에 출입할 때는 철저히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성섭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서 애인인 조영란을 활용하기로 했다. 조영란은 회장의 여동생이라서 본부에 무상출입이 가능하니 기회를 엿보다가 조영란이 들어가 YTP 중요 문서를 몰래 갖고 나오게 하여, 이를 야당 측에 제공하여 윤보선과 김영삼이 터뜨리게 했다.

오성섭의 증언에 의하면 YTP 총회장 조정찬 밑에서 부회장을 맡았던 사람은 경희대 출신으로 흥사단 이사장을 지낸 김종림(金鍾林)[38]이었다. 김종림은 YTP 부회장이란 신분을 감춘 채로 1963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재건국민운동 서울시지부 지도과장으로 있었고, 선거 후 다른 YTP 간부들처럼 공화당으로 들어가 중앙상임위원을 역임, 전국청년단체연합회장을 거쳐 흥사단 이사장에 이르렀다. 물론 그가 YTP라는 단체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감추었을 테니 흥사단에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몇 해 전 오성섭으로부터 이런 이야기와 함께 YTP 회장이었던 조정찬이 생존해 있다는 말을 듣고, 어쨌든 YTP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었고 이미 반세기나 지난 일이니 이제는 YTP에 대한 정확한 증언을 해달라고

---

37) 이 건물은 아직도 남아 있고 건물 사진은 『신동아』(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 10월호(1964), p.176)에 실려 있다.

38) 김종림(金鍾林)은 YTP 간부 중 조정찬(趙正燦) 이외에 실명이 정확히 알려진 유일한 인물로 고인이 되었다. 그의 이력서에는 생활신조로 "정직한 사람이 되자"라고 적혀 있다.

권고할 것을 부탁했으나, 시골에 칩거한 채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YTP는 이처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야당에 의해 그 실체가 폭로됨으로써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비밀단체란 그 정체에 관한 비밀이 유지되는 경우에 생명력을 갖는 것이지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면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3) 학원사찰성토대회(1964/4/23)

(1) 중앙정보부원 김덕창

필자는 1961년 경기고를 졸업한 후, 같은 해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하였다. 김덕창(金德昌)은 경기고 4년 선배로,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입학한지 얼마 안 된 1961년 4월 19일, 4·19혁명 1주년이 되던 날이었다. 그날 문리대 학생들은 4·19 당시 밟았던 코스를 따라 침묵의 시위행진을 벌였는데, 이 침묵시위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문리대 학생회 상임위원장 김덕창이었다.[39] 행사 준비과정에서 그를 도운 것이 인연이 되어 김덕창과 필자는 절친한 선후배로 지내게 되었고, 이런 관계는 2년 가량 계속되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63년 9월 말쯤이었다. 그해 봄에 졸업한 김덕창이 문리대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 그간 별로 만나지 않던 김덕창과

---

39) 그 후 김덕창은 문리대 학생회장에 당선되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지냈다. 김덕창은 중앙정보부원이 된 후 주로 서울대학교 후배들에 대한 사찰을 담당하였다. 그 후 1986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전북지부장, 1988년에는 안기부 경남지부장, 1990년에는 안기부 심리정보국장, 김영삼 정권 하에서도 1993년~1995년까지 '내외통신' 사장을 지내는 등 승승장구했다.

접촉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코리아 헤럴드』 기자라고 했는데 그의 영어 실력을 잘 알고 있던 필자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후진국에서 필요한 것은 '선의의 독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이 공화당에 입당했는데 국회의원이 되려면 후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때까지 정보 수집을 위해 중앙정보부원이 대학을 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문리대에도 중앙정보부원이 아니라 동대문경찰서 정보과 형사 차익수(車益秀)[40]가 출입했다. 그는 1960년 4·19 다음날부터 동숭동 서울대학교를 출입하여 웬만한 학생이면 다 알고 있었고, 그 역시 학생들과 잘 어울려서 학생들은 농담 삼아 그를 '차 교수' 또는 '차 박사'라고도 불렀다. 이런 마당에 김덕창이 뭔가 이상하기는 해도 중앙정보부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김덕창이 자신이 공화당 전국구의원이 되는 데 필요하다며 경기고 후배들을 시켜 한 일은, 대통령에 출마한 변영태(卞榮泰)에게 후보사퇴를 하지 말라고 격려편지를 쓰게 하는 일이었다. 변영태가 후보를 사퇴하지 않으면 야당 표를 잠식하는 셈이 되어 박정희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김덕창이 한 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역시 전국구의원이 되는 데 필요하다며 한 것이 자기 휘하에 상당한 조직이 있음을 가장하기 위한 가짜 조직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서식을 가지고 다니며 후배들을 모으고 있었다. 이때도 역시 경기고 출신 후배들이 주요 대상이었다.[41]

필자는 한 달쯤 김덕창과 접촉하며 이런 장면들을 목격했고 그와 함께 몇몇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가 정보부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

40) 차익수는 1986년 6월 26일 경감으로 정년퇴임했다(『동아일보』, 1986/06/27, 10면 〈광화문 수첩〉).

41) 김덕창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 가짜 조직을 정보부에 실제 보고했다 한다. 필자는 이 이야기를 중앙정보부를 퇴직한 필자의 친구 부친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덕창이 편지를 쓰게 하고 가짜 조직을 만드는 등 무언지 이상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정체는 알 수가 없다고 동료들에게 일러주었다. 10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김덕창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42)]

그 후 필자는 부친[43)]의 충고에 따라 형제들이 있는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1964년 12월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미국유학 준비에 몰두하여 여러 달 주변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동료들의 연락을 받고 1964년 3월 24일 시위에 참여,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긴급구속되었다가 그 이튿날 오후 석방되어 시위대와 합류한 후, 귀가하여 유학 준비를 계속했다.

3월 하순경 필자의 경기고 후배들이 찾아와 경기고 출신 문리대 학생들이 중앙정보부 '프락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44)]이 퍼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1963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직접 목격한 일도 있고 하여 후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김덕창의 행위임을 직감하였다. 이때는 이미 그가 중앙정보부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이 얘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칩거하고 있는 중에도 군사반

---

42) 11월 26일에는 제6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어서 대학에도 별 움직임이 없었으니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김덕창은 밖에서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판명되었다.

43) 송상근(宋相根)(1913/10/15~2010/2/7): 휘문고보(1933), 세브란스 의전(1940) 졸업, 시립영등포병원장(1962), 국립 철도병원장(1963) 역임. 아들인 필자가 학생운동에 가담하자 학생운동에 관한 자료 수집을 시작, 총 45권 6,570쪽에 달하는 방대한 스크랩북(1964~1971년)을 남겼다. 필자는 이 '송상근 스크랩북'을 2008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기증하였다.

44) 3·24시위를 주도한 김중태(金重泰), 현승일(玄勝一), 김도현(金道鉉)은 정치학과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다. 특히 김중태는 필자의 집에 자주 기거했었고 김도현은 같이 하숙을 하기도 했다. 김덕창이 정보부원이 되어 문리대를 사찰하고 다녀 문리대 학생운동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필자가 유학준비 한다고 집에 틀어박혀 있으니 야속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필자를 학생운동 현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그런 소문을 퍼트렸다고 하는데, 사실 당시 정보부원 김덕창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필자밖에 없었다.

란을 일으킨 박정희가 한일회담을 마구잡이로 타결하려는 데 분노를 느끼고 있어서 시위에 참여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에 나가면 유학은 물 건너갈 것이고, 그렇다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정보부원 김덕창이 휘젓고 다녀, 한일회담 반대운동뿐 아니라 경기고 출신 후배들까지 망가트릴 것이 아닌가? 참으로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다. 며칠간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가족이 걸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적으로는 명예를 더럽히고, 공적으로는 국가대사를 그르치고 있는 권력에 맞서 싸울 것인가? 결국 분노와 실망과 수치의 격한 감정과 김덕창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필자밖에 없다는 인식이, 유학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달려 나가게 하였다.

필자는 경기고 선배가 정보부원이 되어 문리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경기고 출신들이 두 팔 걷고 앞장서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자 경기고 1년 선배이고 정치학과 동기인 손정박(孫正博)이 나섰고, 1년 후배 국문과 이영섭(李永燮)과 사회학과 최해용(崔海容)이 가세했다. 보안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자를 포함해 이만한 인원이면 충분했다.

조사본부는 경기고 동기로 절친한 친구인 최무웅(崔武雄)[45]의 장충동 집으로 정했다. 최무웅의 장충동 집은 상당히 커서 여유 공간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장소를 바꿔야할 경우에 대비하여 아현동에 있는 이영섭(李永燮)의 집도 활용하기로 했다.[46] 조사 기관의 명칭은 3·24시위를 주도한 문리대 '한일굴욕회담반대투쟁위원회' 산하의 '학원사찰조사위원

45) 최무웅은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로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생이었다. 그때는 의예과와 치의예과가 문리대 소속이라서 문리대 학생회장을 지낸 김덕창을 최무웅도 잘 알고 있었다.

46) 이영섭의 부친은 당시 현직 이주식(李柱植) 검사였다. 그분은 우리가 학생운동을 하던 때 아현동 집에 논의하러 모이면, 뒷짐 지고 슬그머니 집을 나가 자리를 비켜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회'로 하기로 했다.

필자와 조사위원들이 낮에는 문리대 구내에서, 저녁 때는 주로 장충동 최무웅의 집에서, 이따금 아현동 이영섭의 집에서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은 이러하다.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미 문리대 경기고 동문들[47]을 활용했던 김덕창의 학원공작은 3·24시위 전에 시작되어 3·24시위 때에는 본격적으로 행해졌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교내에서의 동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시위 때 몇 명의 학생들이 어디까지 진출했는가 하는 정보를 공중전화를 통해 302-453X번으로 자기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의 임무를 주고, 그 대가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월 2, 3천 원의 정보비를 제공했던 것이다. 조사 결과 3·24시위는 원래 3월 18일경 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을 통해 정보가 누설되어 연기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조사를 마치고 필자는 이들이 증언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쓰게 했고, 필자도 이들에게 개인적인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써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우려 하는 대상이 중앙정보부라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국가기관이라, 혹여 나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고, 나에게 증언한 학생들은 자신이 프락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지금까지도 이들의 이름을 발설한 적이 없다.[48]

경기고 커넥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덕창의 중앙정보부와는 다른 라인에서 문리대에 프락치 조직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는 부수적 성과도 거두었다. 조사 결과 몇몇 문리대 학생들의 경우만 해도 '한국사회연구회' 등 37개에 달하는 사이비 어용학생단체와 연관되어 있었다.

---

47) 김덕창은 경기고 후배들뿐 아니라 자기 동기도 '프락치'로 활용했다.

48) 필자는 지금까지 이들의 이름뿐 아니라, 얼마 후 조사한 YTP 소속 문리대생들의 이름도 밝힌 적이 없다.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이들과의 의리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원사찰 과정에서의 이들의 존재가 아주 미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2) YTP 문건 입수

1964년 4월 초쯤 중앙정보부원 김덕창의 학원사찰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여 얼추 조사를 마무리해가던 중 뜻밖에 YTP라는 단체를 접하였다. 4월 중순쯤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49] 경기고 후배 최해용이 헐레벌떡 오더니 자기 친구가 아는 학생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급하게 문리대 앞 낙산다방으로 가보니 중앙대 학생 '김영식'[50]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이런 것을 조사한다면서요?" 하며 보자기에 싼 문건을 나에게 넘겨주기에, 무엇이냐고 물으니 보면 안다고 하고 허둥지둥 사라져 버렸다.[51] 그가 주고 간 보자기를 푸는 순간 필자는 문자 그대로 기절초풍할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YTP'라는 단체의 기관지 『향지(向志)』를 비롯하여 YTP 서울특별시위원회의 회의록, 입회원서, 신상명세 카드, 서약서, 훈련교본 등 어마어마한 내용의 문건이 들어 있었다.

필자는 느닷없이 YTP 문건을 접하고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때는 이미 필자가 자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덕창이 전해 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급히 만나자고 연락해오는가 하면, 필자가 응하지 않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하는 소리가 들려오던 때였다. 빨리 조사한 것을 정리하여 발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중앙정보부와 싸우는 것만도 버거워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마당에 세상을 시끄럽게 한 YTP가 내 손아귀에 들어온 것이다. 이제까지

---

49) 날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YTP에 대한 공격이 한창인 때로 기억된다.

50) '김영식'으로 기억되지만 '이영식'일 수도 있다. 이 점에서는 최해용의 기억도 확실하지 않다.

51) 그가 왜 필자에게 YTP 문건을 건네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문건들 가운데 'YTP서울특별시위원회 회의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서울시위원회 소속이었던 같고, '회의록'이 1963년 10월 26일로 끝나는 것으로 미루어 YTP는 이때쯤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

사람들의 입에만 자주 오르내렸을 뿐, "일체의 비밀은 생명으로 엄수하며 배신을 할 때에는 생명을 바친다"는 서약[52]을 한다는 정도 이외에는 전혀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단체에 대해 문건만을 토대로 조사할 수는 없지 않은가? YTP와 같은 단체는 틀림없이 중앙정보부와 무슨 관계이건 있을 텐데 이러다 잘못하면 신상에 해가 되는 일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복잡해졌다.

필자가 마침내 YTP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중앙대생이라던 학생이 건넨 문건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YTP 서울특별시위원회 회의록〉, 〈입회원서〉,[53] 〈신상명세 카드〉와 같은 문건이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3년 6월 29일자 '회의록'에 동원 예상수가 "서울대=1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YTP가 서울대에 침투한 것이 분명하고, 〈입회원서〉와 〈신상명세 카드〉에 기재된 것을 보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조사하겠다고 결심하자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YTP 입회원서를 쓴 사람 가운데 문리대 학생을 추적해 보니 27명 정도가 가입해 있었고, 필자의 정치학과 동기 42명 중 두 명이 YTP 회원이었다. 이들은 아는 사람의 권유로 가입했으며, 주로 1963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측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1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소인원은 50명이었으나 서울대학교는 예외였고,[54] 주로 YTP 서울

52) 이 서약이 나오는 YTP 〈서약서〉는 건네받은 문건에 포함되어 있었다. 〈서약서〉, 〈입회원서〉, 〈신상명세 카드〉의 사진은 『동아일보』 1964년 4월 24일자 3면에 게재되어 있다.

53) YTP의 〈입회원서〉에는 "귀회(貴會)의 구국이념과 제반 원칙에 찬동하고 귀회(貴會)의 목적 관찰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것을 서약하오니 입회(入會)하여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54) YTP는, 회장 조정찬이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니 동국대학교 출신들과 YTP의 전신(前身)인 KKP를 결성한 곳이 흑석동이어서 중앙대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대학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직에 어려움이 많아서인지 예외를 허용한 것 같다.

특별시위원회로부터 월 1만 원 정도의 자금을 받았음이 판명되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YTP 본부의 위치도 파악했다. 비밀단체 KKP로 결성되어 MTP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YTP로 양성화된 후 남대문 근처 '금마차 다방' 위층에 사무실을 두고, 밖에는 '청사회중앙총회(靑思會中央總會)'라는 간판을 크게 내걸고 있었다. 조사할 당시 감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사진 촬영만 하였지만, 사무실 문에 "갑피(甲皮)516"이라는 암호로 YTP본부라는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었다.

YTP 조사에 들어가자 철학과 60학번 최혜성(崔惠成)이 가세하여 큰 힘을 보태주었고, 그와 함께 입회원서를 통해 파악해놓은 서울대 이외의 대학 회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YTP 행동규범이 그렇듯 이들이 기거하던 집은 골목이었는데도 사방으로 길이 나있어 언제든지 도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들을 만날 때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나 않을까 해서 한 사람은 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필자 등은 집으로 들어가 면담하곤 했었다. 중앙대 학생으로 기억되는 한 간부회원은 다 죽은 조직을 무엇 때문에 파헤치느냐고도 했지만 YTP의 실상에 대해 꽤 자세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가 접촉한 사람은 대부분이 학생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고위 간부와는 접촉할 수 없었다.

조사를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는 했지만, 이들이 KKP로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부터 무엇 때문에 비밀조직으로 출발했으며, 중앙정보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떤 학원사찰 행위를 했는지를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기에는 시간, 경비, 경륜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필자의 나이가 만 22세를 갓 넘은 애송이에 불과하지 않았던가?[55]

솔직히 말해 YTP를 조사할 때, 길을 가다가도 누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공연히 뒤를 돌아다본다든지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가위눌린

55) 필자는 1942년 4월 3일생이다.

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해나가는 중 YTP가 실체보다 부풀려져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왠지 두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꼭 이런 점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중앙정보부원 김덕창이 필자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협박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3) 〈학원사찰 및 학원분열에 대한 보고서〉 발표 및 학원사찰 성토

필자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1964년 4월 20일쯤부터 최무웅의 장충동 집에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때 학원사찰의 내막을 〈학원사찰 및 학원분열에 대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5개 항목 4천여 자로 정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56] 즉 서두에 학원사찰성토대회를 여는 것은, "건전한 아카데미즘 형성과 상아탑 속에서만은 보장되어야 할 절대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지성인의 놀라움의 표시이요, 이는 조국의 장래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마저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당국의 행위에 대한 우리들의 분노의 표시이다"라고 전제하고,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원사찰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여 비판하였다.

① 중앙정보부의 학원사찰에 관한 건: '학원사찰성토대회'를 개최하는 데 주된 동기를 제공한 중앙정보부원 김덕창(金德昌)의 학원공작을 주로 규탄하였다.

② 악명 높은 YTP에 관한 건: 김덕창의 학원공작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등장한 중앙대생이 제공한 문건을 토대로 YTP에 대해 조사한

56) 필자가 '학원사찰성토대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해 보도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64년 4월 27일자 『대학신문』과 1964년 5월 8일자 『새세대』의 보도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 문리대 신문 『새세대』는 현재 보관본이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다행히 필자의 부친이 스크랩해둔 자료가 남아 있다. '학원사찰성토대회'에 대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현재 검색할 수 있는 신문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1964/04/24, 3면, 『조선일보』, 같은 날짜, 7면, 『경향신문』, 같은 날짜, 3면, 『한국일보』, 같은 날짜, 3면.

내용을 폭로하였다.

③ 사이비 학생조직: 문리대 내의 사이비 학생단체만 해도 37개에 달하고 그 가운데 가장 저열(低劣)한 것은 공화당이 많은 자금을 투입한 '한국사회연구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④ 불안감 조성: 대학 내에 형사가 상주하고, 3·24시위 이후 학생들을 납치하는 등 대학에 불안감 조성하는 문제를 성토하였다.

⑤ 학원분열 획책: 해외유학, 해외유람 등을 미끼로 학생을 매수하고 각 대학 간에 불신감을 조성하는 당국이 학원분열을 시도한 실례를 들어 비판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지의 〈학원사찰 및 학원분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4월 22일 충무로에 있던 최혜성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인쇄작업에 들어갔다.[57] 원고를 인쇄소에 맡기면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보안유지와 경비 절약을 위해 필자가 등사 원지에 철필로 직접 써서 등사기로 인쇄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방법을 썼다. 그날 오후 필자와 손정박, 최혜성 그리고 학원사찰조사위원회에서 함께 작업하던 후배들을 총동원해 다음날 있을 학원사찰성토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마침내 1964년 4월 23일 오후 3시 4월혁명기념탑 앞에 헌화한 후, '박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한일회담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을 몽둥이찜질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광경을 그린 대형 만화를 앞에 걸어놓고, '학원사찰에 대한 성토대회'를 개최했다.[58]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대학신문』에 김학준(金學俊)[59]이 '학원사찰에 대한 성토대회'에 대해 쓴 기사 내용이다.[60]

---

57) 장소를 옮긴 것은 장충동이 주택가라서 인쇄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58)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은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다(『동아일보』, 1964/04/24, 3면).

59) 김학준은 필자와 정치학과 동기로 『대학신문』 학생 주간이었다.

60) 『대학신문』, 1964/04/27.

한일회담반대의 라인을 따라 3·24학생시위 이후 캠퍼스를 박차고 가두로 진출했던 한일회담반대투위는 "아카데미즘의 형성과 상아탑 속에서만은 보장되어야할 절대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지성인의 놀라움을 표시"하고, "한일회담반대의 투쟁 대오를 교란·약화시키려는 의도"를 저지시키기 위해 학원사찰조사위원회를 조직—그 내적 정비의 첫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문리대 학원사찰조사위(學園査察調査委)는 지난 23일 2시 30분 문리대 4·19의거기념탑 앞에서 중앙정보부의 학원침투 등 다섯 항목의 학원사찰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열고, 손정박(정치·4) 군 등의 진상폭로와 〈학원사찰 및 학원분열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여 참집(參集)한 300여 학생들을 격분시켰다. 조위(調委)가 폭로한 진상은 다음과 같다.

◀ 정보부의 학원 침투 / 전(電) 302-453X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김 모(본 대학 출신)는 학원 내에 어용학생단체를 조직하고 학생들의 동태파악과 자유로운 학내활동의 저지·파괴·분열을 획책코자 학생들을 포섭—정보제공을 강요했다. 기자로 신분을 가장한 김 모는 1인당 월 2·3천 원의 금액을 정보비로 제공하고 포섭작전으로 금전수교·향응제공을 실행했고 전화 302-453×로 정보연락을 취하게 하였다.

① C군(君)(3년)은 약 1,000원의 현금을 받고 "학교에 별일없나?" "예, 별일 없습니다" 식의 전화를 교환했으며, 학생 시위가 3월 18일에 거사된다는 정보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② K군(4년)이 2000원을 김 모로부터 받았고

③ 김 모가 학생들을 포섭하여 일종의 서약서를 쓰게 한 것이 S군(4년) K군(4년)에 의해 확인되었다

조사위(調査委)는 "이와 같은 엉터리 사꾸라 대장을 배치한 중앙정보부의 인재부족과 무능력에 심히 동정하는바"라고 덧붙였다.

◀ 악명 높은 YTP / 갑피(甲皮)516이 암호

▷"귀회(貴會)의 구국이념과 제반원칙에 찬동하고 귀회의 목적관철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것을 서약하오니 입회(入會)하여 주십시오."(〈YTP 입회원서〉)

▷① 일체의 비밀은 생명으로 엄수하며 배신할 때에는 생명을 바친다.
② 명령은 생명을 걸고 절대 복종한다.
③ 반공을 회(會)의 제1주의로 삼고 혁명과업 수행에 전력을 경주한다(YTP 서약서 내용).

YTP는 청사회(靑思會)로 '문맹퇴치회(文盲退治會)'라는 가명의 비밀테러단체였다. 이러한 괴단체의 본부는 남대문 근처의 금마차다방 상층에 있는 사무실로 문에 '갑피(甲皮)516'이라는 암호를 표시하였다 한다. 연락전화는 ⑧84××로 평상인은 도저히 통화불능이며, 이 다이얼을 돌리면 아무런 신호도 들리지 않고 전화국의 관할권 외에 있는데, 교환수에 의하면 이러한 전화는 여러 대가 있었다고 한다.

서울대는 주로 서울위원회로부터 월 만 원 정도의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 일단 입회가 허락되면 탈퇴가 곤란하며 회원 간의 '퍼스널·커뮤니케이션'을 억제해야 하는데, 그 일례로 "아무리 가깝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담회를 억제한다"는 식이었다.

◀ 사이비 학생조직 무려 39개나 되

본 대학 내의 사이비 학생단체는 39개며, 가장 저열 부패한 단체는 '한국사회연구회'로 공화당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조직되었다. 자금의 대부분을 회장인 H군(법대), K군(4년)의 호주머니로 상당한 액수가 흘러들었다고 간주된다.

◀ 불안감의 조성도 / 낙산다방에 형사 많아

조사위(調査委)는 "3·24시위 이후 대학가에서의 납치가 공공연히 거행되고 경찰서 출두를 강요하는 추태를 보이는데, 그 실례로 지난 3월

21일 하오 9시경 학림다방에서 김도현(金道鉉)(정치 4) 군을 동대문서에 출두시켜 빨갱이로 몰고, 이에 김 군이 울분, 의자를 밀어 파괴되자 기물 파손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 학원의 분열 획책 / 유학, 수표, 향연 등

학생들을 분열·교란시키려고

① 문리대 내 기존단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단체 조직, 굴욕회담반대 투위(鬪委)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에 성공하는 경우 재정적 보증은 물론 해외유람을 제의해온 모 기관원이 있고

② H군(4년)에 의하면, 조선호텔 등에서 향연, 해외유학의 알선 5만 원짜리 수표 제시 등 유혹의 손을 뻗쳤으며

③ 시내 각 대학교간의 불신감을 조성하고 동일보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4) 언론과 야당의 혼동(混同)과 무지(無知)

스물두 살 먹은 젊은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중앙정보부의 비행(非行)을 파헤치고 있었을 때, 언론과 야당은 실제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했는데, 적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으니 자신이 처한 처지를 판단하기란 불가능한 법, 그러니 간교한 술책을 일삼는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었다.

언론과 야당의 현상(現狀)에 대한 혼동과 무지는 YTP에 대한 지나친 몰입에서 시작되었고 YTP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졌다. KKP, MTP라는 비밀조직을 모체로 하는 YTP가 중앙정보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디까지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수로 이어졌다.

첫째, 언론과 야당이 YTP가 곧 청사회라는 뻔한 사실을 알지 못했

다. 이것이야말로 있을 수도 없는 무지의 극치였다. 1963년 10월 5일 윤보선이 처음으로 YTP의 존재를 폭로하여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로 인해 YTP는 사실상 붕괴되었다.[61] 그러다 1964년 4월 8일을 시작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시위주동학생들에게 불온문서, 편지, 100달러짜리 지폐 등이 들어 있는 괴소포(怪小包)가 배달되는 사건이 일어나 파문을 일으켰고, 이 와중에 YTP의 존재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괴소포 사건'이 터지자, 4월 13일 야당은 국회에서 "불온문서 진상 하나 규명해내지 못하는 중앙정보부는 즉각 해체시키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YTP라는 괴조직체가 각 대학에 있다고 하는데, 이 조직체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추궁했다.[62] 이 같은 야당의 추궁과 언론의 공세가 거세지자 4월 17일 국회에서 엄민영(嚴敏永) 내무장관이 YTP가 청사회라고 밝혀[63] 야당과 언론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YTP회장 조정찬도 언론과의 회견에서 "공화당이나 정보부와 관련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거짓이기는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증언을 하였다.[64]

둘째, 중앙정보부와 YTP를 동일시하거나, 동급으로 보아 중앙정보부의 학원공작을 간과하였다. 김형욱(金炯旭)의 중앙정보부와 조정찬(趙正燦)의 YTP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김형욱은 대통령 박정

---

61)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윤보선이 처음으로 YTP를 공격한 후, 비밀단체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YTP가 사실상의 붕괴과정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몇 기록에서 입증되고 있다. 1964년 10월 25일 청사회 감찰부장 최선웅이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경향신문』, 『조선일보』, 1963/10/26, 7면)는 중앙정보부가 YTP를 방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YTP서울특별시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1963년 9월 10일과 10월 19일의 기록도 YTP가 붕괴과정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2) 『경향신문』, 1964/04/13, 1면.

63) 엄민영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YTP는 선거를 전후해서 만들어진 '청사회'라는 청년단체로 조사 결과 그들의 헌장 내용은 결코 불순한 것이 아니며 조직이나 자금도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964/04/17, 1면).

64) 『경향신문』, 1964/04/18, 3면 〈정가낙수〉.

희가 임명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고위 공직자였고, 조정찬은 YTP라는 비밀사조직의 회장으로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이(李) 모 대위를 '지도위원'으로 모시고 그의 지시를 받는 '프락치'였다. 그러므로 중앙정보부와 YTP는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대학에 침투하여 벌이는 학원사찰의 규모나 방법이라는 면에서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언론은 YTP와 청사회가 같은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처럼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YTP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좇느라, 주로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애송이' 집단만을 주목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형형색색'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중앙정보부라는 거대한 집단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야당과 언론이 YTP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관계로, 필자가 위험과 협박을 무릅쓰고 조사하여 발표한 〈학원사찰 및 학원분열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YTP라는 영어 이니셜뿐이었다. 사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다섯 항목'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정보부원 김덕창에 의한 학원사찰'이었는데도, 언론은 보도의 시선을 전적으로 YTP쪽으로만 돌리고 있었다.

4월 23일의 학원사찰성토대회 때부터 학생운동에 관한 보도에서 선두를 달려, 다른 언론의 받아쓰기 대상이 됐던 김원기(金元基) 기자[65] 역시 YTP에만 몰입하고 있었다. 당시 김원기 기자가 쓴 『동아일보』 기사[66]의 제목[67]만 보아도, YTP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접하고 그가 얼마나 흥

---

65) 『동아일보』 사회부 소속이었던 김원기 기자는 은밀하게 유인물 제작비용을 대주는 등, 과장해서 말하면, 문리대 학생운동을 함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후 정치학과 동기인 현승일(玄勝一)의 도피처를 알선하기도 했다. 필자는 학원사찰성토대회를 개최하기 전날, 〈학원사찰 및 학원분열에 대한 보고서〉 유인물을 김원기 기자에게 미리 건네주어 『동아일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 훨씬 상세히 보도하였다.

66) 『동아일보』, 1964/04/24, 3면.

67) 『동아일보』 3면 톱으로 보도된 기사의 제목은 「"생명 걸고 비밀엄수" YTP 등 학원사찰의 진상」 등 온통 YTP에 관한 것들이었다.

분했는지 알 수 있다.[68]

원래 필자 등이 학원사찰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밝혀내고자 했던 것은 김덕창에 의한 중앙정보부 학원사찰이었고, 이를 조사하던 중 중앙대학생으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아 YTP도 조사하게 되었음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런데도 김 기자는 〈학원사찰 및 학원분열에 대한 보고서〉에 나열된 순서를 임의로 무시하여 "(1) YTP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붙여 맨 앞에 내세우고, 김덕창을 성토하는 내용을 "(2) 학원사찰 및 사이비학생조직·학원분열 획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묶어 뒤로 돌려버린 것이다. 내용 면에서도 김 기자의 기사는 YTP와 정보부를 혼동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해, 중앙정보부가 필자 등을 '전직 YTP'로 몰아 복수하는 데 소재를 제공하였다.

> 이날 성토대회에서 YTP를 비롯한 사이비학생단체의 정체 및 모 부의 학원사찰 내용을 적은 5개 항목 4천여 자에 달하는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돌렸으며, 송철원(宋哲元)(정4), 손정박(孫正博)(정4)군은 폭로내용이 사실 그대로라고 학생들 앞에서 증언했다. 그간 직접 조사에 나섰던 동 대학 4학년 C군 등 조사위 학생들은 그들이 폭로한 사실이 모두 YTP 회원들의 반성자백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며, 이들은 각기 자기가 폭로한 내용에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 지금 조사위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69]

위의 기사를 보면 "송철원·손정박 군은 폭로내용이 사실 그대로라고 학생들 앞에서 증언"했고, "동 대학 4학년 C군[70] 등 조사위 학생들은

---

68) YTP에 몰입하여 흥분했던 것은 비단 김원기 기자와 『동아일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이 그러했다. 여기서 김원기 기자의 기사를 예로 드는 것은 그가 다른 언론기관보다 앞선 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69) 『동아일보』, 1964/04/24, 3면.

70) 필자가 YTP 문건을 입수한 후 학원사찰조사위원회에 합류한 최혜성(崔惠成)을 가리킨다.

그들이 폭로한 사실이 모두 YTP 회원들의 반성자백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며 이들은 … 확인서를 제출, 지금 조사위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하여, 학원사찰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필자와 동분서주했던 손정박이 마치 YTP 회원으로 '증언'한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또한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조사위원장인 필자였는데도 'C군 등'인 것처럼 되어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YTP가 당시 워낙 자주 보도되어 중앙정보부와 혼동한 데서 나온 것이지만, 김형욱의 중앙정보부가 필자와 손정박을 '전직 YTP'로 몰아 형편없는 인간으로 홍보(?)하는 데 텍스트가 되어버렸다. 이후 필자가 중앙정보부와 계속 싸움을 벌이자, 세인의 관심도 돌릴 겸 복수전(?)도 벌일 겸, 중앙정보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것이 '전직 YTP'였다.

김원기 기자가 악의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소지도 충분히 있었다. 다만 필자가 성토대회 전날 그에게만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으니—김 기자의 기사와 함께 실린 'YTP 입회원서와 서약서 등의 용지'도 필자가 제공한 것이었다—좀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 또한 실수가 있었다. "①중앙정보부의 학원사찰에 관한 건"과 "②악명 높은 YTP에 관한 건"을 분리시켜 발표했어야 했다. 중앙정보부원 김덕창에 의한 학원사찰에 대하여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니 4월 23일 이를 먼저 폭로하고, 한창 매스컴을 타고 있던 YTP는 시차를 두고 폭로했어야 혼동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필자 등이 조사에 바빴던 그때, 시시각각 사태가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서 신문을 읽을 겨를도 없었으니 이런 저런 경우를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

필자가 주도한 1964년 4월 23일의 학원사찰성토대회는 두 가지의 부수적 효과를 창출했다. 첫째는 YTP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내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때를 기하여 필자가 중앙정보부의 '공적(公

敵) 1호'(?)가 되어 끈질긴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4) 민족적민주주의 장례식(1964/5/20)과 송철원 납치·고문사건 (1964/5/21)

학원사찰성토대회를 통해 중앙정보부에게 공격의 포문을 연 후, 필자는 김중태(金重泰) 등과 한일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박정희 정권에 대항할 방도를 찾았다. 그러던 중, 박정희가 주창한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장례를 지내버리자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국대 학생들과 힘을 합치기로 하고, 1964년 5월 3일 동국대를 방문하여 5월 20일 문리대 교정에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하자는 데 합의를 보았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준비를 위해 동국대 외에 성균관대, 건국대, 서울대 사대 등과 연락을 취하여, 5월 16일 저녁 문리대 앞의 중국집 '진아춘(進雅春)'에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때 서울대 문리대 학생 대표로 김중태(金重泰), 현승일(玄勝一), 김도현(金道鉉), 송철원(宋哲元), 최혜성(崔惠成), 이원재(李源載), 동국대 학생 대표로 장장순(張長淳), 박동인(朴東仁), 성균관대 학생 대표로 박형길(朴炯吉), 김광렬(金光烈), 건국대 학생 대표로 김영목(金榮睦), 백승홍(白承弘), 서울대 사대 학생 대표로 김길렬(金吉烈) 등 21명이 참석하였다.[71]

필자는 1964년 5월 20일 오후 거행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조사(弔辭)를 낭독한 후 행사장을 빠져나와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에 합세하였다. 오후 늦게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필자와 문리대 동료들은 각자 피신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문제는 별 생각 없이 필자가 발걸음을 옮긴 곳이 경기고 동기인 최무웅(崔武雄)의 장충동 집이라는 데 있었다. 최무웅의 집은 학원사찰성

---

71) 『조선일보』, 1964/06/18, 1면 〈학생데모사건, 김중태 등 공소장〉.

토대회를 준비할 때 본부로 사용한 장소여서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깜빡한 것이다.

5월 21일 0시 30분경 필자는 중부경찰서에서 왔다는 괴한에게 납치되어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김중태 등 동료들이 피신한 장소를 알아낼 목적이었고, 중앙정보부의 학원사찰을 폭로한 데 대한 보복이기도 했다. 필자가 끌려 다닌 경로는 '최무웅의 집→중부경찰서→남산 중앙정보부→경찰병원→치안국 마당→동대문경찰서'였다. 결국 동대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5월 23일 밤 11시 30분경 석방되어 귀가하였다.

1964년 5월 23일부터 언론은 '송철원 납치·고문 사건' 또는 '송철원 린치사건'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72]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필자로서는 어떻게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여론을 일으키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또한 피신한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에 대한 엄호사격이기도 했다.

기자들뿐 아니라 조사단도 방문하여 5월 26일 오전 필자는 서울변호사회 조사단에게 증언했다.[73] 5월 27일 오전에는 서울지검 형사3부 정명래(鄭明來) 검사가 출장 나와 임상심문을 했고, 박한상(朴漢相) 변호사도 한국인권옹호협회 조사단을 이끌고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물었다.[74]

조사단이 방문할 때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필자는 YTP라면 사족을 못 쓰고 덤비는 언론의 'YTP 몰입'을 활용하기로 했다.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YTP보따리를 풀어놓자, 『동아일보』 김원기 기자의 기

---

72) 『경향신문』, 1964/05/23, 7면; 『동아일보』, 1964/05/23, 7면; 『조선일보』, 1964/05/24, 7면; 『한국일보』, 1964/05/24, 3면.

73) 『동아일보』, 1964/05/26, 3면; 『경향신문』, 1964/05/26, 7면; 『조선일보』, 1964/05/27, 3면; 『한국일보』, 1964/05/273면.

74) 『동아일보』, 1964/05/27, 7면; 『경향신문』, 1964/05/27, 3면; 『한국일보』, 1964/05/28, 3면.

사를 받아쓰던 신문들이 한풀이라도 하듯 대문짝만하게 보도했다.[75]

『경향신문』은 "송(宋)군, 병석(病席)의 폭로", 『조선일보』는 "YTP, 제3의 폭로", 『한국일보』는 송(宋)군 "YTP에 제3의 폭로"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지만, 『동아일보』는 벌써 옛날에 보도했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듯 2단 기사로만 보도했다.[76] 이로써 1963년 10월 5일 윤보선에 의해 그 존재가 최초로 폭로되어 사실상 몰락했고, 1964년 4월 23일 학원사찰성토대회를 통해 사망한 YTP가 확인 사살된 것이다.

'송철원 납치·고문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5월 29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무장군인 법원 난입사건'과 '송철원 린치사건'의 관련자를 조속히 조사, "법에 의해 엄격히 조처하여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77] 이에 5월 29일 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사표를 제출하고,[78] 5월 30일 밤 중앙정보부원 이시복(李時馥), 박세혁(朴世赫), 송병찬(宋炳贊), 세 명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구속되었다. 구속된 세 명은 1심에서 징역 6월, 항소심에서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하여 징역 6월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79]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현역 중앙정보부원이 피의자를 고문한 이유로 구속되어 실형이 확정된 것은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

75) YTP에 대하여 이때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이미 4월 23일 학원사찰성토대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었다.

76) 『경향신문』, 1964/05/27, 3면; 『조선일보』, 같은 날짜, 3면; 『한국일보』, 같은 날짜, 3면; 『동아일보』, 같은 날짜, 7면.

77) 『경향신문』, 1964/05/29, 1면; 『동아일보』, 같은 날짜, 1면; 『조선일보』, 1964/05/30, 1면; 『한국일보』, 같은 날짜 1면.

78) 박정희 대통령은 6월 4일 김형욱의 사표를 반려했다.

79) 『동아일보』, 1964/10/29, 7면.

3. YTP=MTP의 정체[80)]

1963년 10월 5일 야당 대통령후보에 의해 그 존재가 폭로된 이래, YTP는 여러 차례 거론만 되었지, 이상하게도 이제까지 그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한 사람도, 그 정체에 대해 정확한 증언을 한 사람도 없다. 1964년 4월 중앙대학생이 YTP 관련 문건을 필자에게 건네주어 그 실체의 일부를 세상에 밝힐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지금은 분실되고 없다. 그러나 필자가 그 문건을 통하여 밝혔던 사실에 대한 기록이 단편적이나마 남아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YTP의 정체를 복원해 보기로 한다.

YTP는 공화당의 청년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MTP의 이름만 바꾸어 등장했으니 YTP=MTP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그래서 MTP가 교육지침서로 발간한 『향지(向志)』를 중심으로 이 비밀단체의 성격을 밝혀 보기로 하자. 『향지』 첫머리에 실려 있는 다음의 내용은 비밀단체로서의 YTP의 성격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준다.

1. 본 교재는 본회의 모든 기밀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정식으로 입회하여 선서한 회원 이외 여하한 자에게도 보일 수 없다.
2. 본 교재는 회원 교육 시나 활동에 참고로 일시 열람할 수 있으나, 그 이외는 여하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다.
3. 본 교재는 완전한 시정(施錠) 장치가 되어 있는 책상이나 함(函)에 보관하여야 한다.
4. 본 교재에 의하여 교육받은 사실은 여하한 경우 여하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다.

---

80) 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 10월호(1964), pp.184-190까지의 내용을 정리, 보완한 것임.

1) 성격, 조직

『향지』 제1권에 수록되어 있는 "문맹퇴치회 운영요강(이하 "운영요강")"을 보면 MTP의 성격과 조직을 알 수 있다. MTP는 이 "운영요강"에서 비밀결사임을 밝히고, 입회할 때에는 KKP 시절과 마찬가지로 "① 회의 교육·훈련활동 등 일체의 비밀은 생명을 걸고 엄수하며 배신을 할 때는 생명을 바친다 ②명령은 생명을 걸고 절대 복종한다"는 등의 선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영요강" 제7조에 "본회가 해산되기 전까지는 사망 이외는 탈퇴를 불허한다"는 탈퇴 절대불허 조항이 있었는가 하면, 제34조에는 "회의 기밀을 탄로하거나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의 발전을 저해롭게 한 회원은 여하한 수단으로든지 엄격한 처벌을 가하여 등교를 못하게 할 것이며 천추만대(千秋萬代)에 걸쳐 처벌한다"는 보복조항도 있었다. "운영요강"에 기술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 운영목적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로 삼고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를 재건하여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에 전력을 경주하겠다는 군사혁명 공약을 우리의 공약으로 확인하고, 이 민족의 마지막 운명을 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최전위대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불도저가 됨에 있다.

◀ 선언

(1) 우리는 어리고 나약하나 우리세대의 사회에서 일체의 부패와 독재세력과 기성세대 그리고 민족적 위기를 조성하는 무리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1)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부정과 불의와 싸울 것이다.

(1) 우리의 신념인 민족애와 구국의 순수한 애국이념은 총검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시종일관 희생과 투쟁으로 사수한다.

(1) 우리들의 신념은 자유와 금전과 미소로써는 꺾을 수 없으며 우리들의 벗은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 동포이며,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투사에게 하시(何時) 하처(何處)에서라도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벗할 것이다.

(1)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박력 있게 사투할 것이다.

(1) 우리는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로써 민족의 수호가 될 것이며, 영광 있는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 자신의 영광과 공명을 바라지 않는 전사가 될 것이다.

(1) 우리들의 이념이 있는 한, 신념이 우리들의 피를 적시는 한, 영광 있는 민족의 내일을 위하여 합심협력 일체가 되어 국가민족의 불도저가 될 것이다.

◀ 7대 원칙

(1) 우리들은 비밀결사이다.

(1) 회원을 엄격히 심사하여 소정의 훈련을 거친다.

(1) 반공투쟁의 전위에 선다.

(1) 일당(一黨) 일파(一派)를 지지하는 정치사회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1) 회원 자격은 10대 이상 30대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획위원회에서 과반수 찬동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30대 이상도 회원이 될 수 있다.

(1) 군사혁명정부가 천명한 공약 실천에 적극 노력한다.

(1) 본회가 해산되기 전까지는 사망 이외는 탈퇴를 불허한다.

◀ 회원선정 요령

(1) 전에 부터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선정 대상의 조건 중 구비한 사람

이 있으면 우선 특정인을 선정하여 본인 몰래 소정 양식에 의거, 상부에 보고, 승인을 득한다.

(2) 선정한 특정인과 인간적으로 친해지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이성간 교제를 하는 것과 같이 접촉한다.

(3) 접촉 기간 중 가정방문을 하고 좋아하는 물건을 선사하고 취미에 맞는 것을 베풀어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장거리여행 또는 길흉사에 동석하면서 호감을 산다.

(4) 어느 정도 친밀하여지면 상호의견을 교환한다.

(5) 접촉하고 의견교환을 하는 동안 특정 인물의 개성을 주의 깊게 냉정히 비평하여 가면서 파악하고 특정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검토한다.

(6) 상부에서 특정한 인물의 배경조사가 끝난 후 회원으로 택해도 좋다는 명령이 있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할 화제(話題)를 주어 의사를 타진한다.

(7) 회 운동에 참가하면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서전을 받아 선정자가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 조사한 사항을 기록한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고 계속 접촉한다.

(8) 상부에 조사한 배경과 자서전과 선정자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고 회원으로서 자격을 구비하면 신원조사서를 받아 보고한다.

(9) 신원조사서와 배후조사서·자서전·선정보고서를 재검토하여 회원번호를 부여한다.

(10) 번호를 받은 후 서약서를 받고 선언문을 낭독케 한 후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에야 명령을 하달하고 활동하게 한다.

◀ 조직원칙

(1) 민주적인 중앙집권으로 종적인 낙하산 식 비상조직을 한다.

(2) 조직 구분은 회별·도별·학교별로 하되 기본 단위는 동·리로 하고 행동단위의 구성인원은 5인조로 한다.

◀ 조직 요령

(1) 각 구분별 단위는 그 단위 회장의 책임 하에, 하부 조직은 회장이 조직한 책임자의 책임 하에 조직한다.

(2) 각 구분별 단위 회장은 자기가 잘 아는 친우를 회원선정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물색, 선전하여 조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책임 하에 편성망(編成網)을 충당하지 못할 때는 상부나 하부 또는 5인조 내에 물색을 요구한다.

2) 교육, 훈련

MTP의 교육지침서 『향지(向志)』에 수록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 국사	2. 5·16 군사혁명의 불가피성
3. 군사혁명을 지지하여야 할 의의	4. MTP 약사(略史)
5. 국내정세	6. 국제정세
7.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8. 회 운영요강
9. 선전 요령	10. 정보수집 요령

이 같은 교육내용 중 "국내정세분석 강좌(『향지』 3호에 수록)"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정세 분석 강좌

1. 후진적 민족성

(1) 자신은 부정(不正)하지만 타인의 부정과 불의에 대한 반항심

(2) 사대주의

(3) 기회주의

(4) 무사(無事)주의(적당주의, 안일주의)
(5) 개인주의
(6) 모방주의
(7) 국내고착주의
(8) 아부정신
(9) 배타성
(10) 공짜생각
(11) 허영심
(12) 시기심
(13) 사리사욕
(14) 의탁심
(15) 지방색
(16) 권력과 관권에 대한 무분별한 반항
(17) 인내력 부족

2. 국내 신사조(新思潮)
(1) 구세대 부인
(2) 참신 하고 양심적이며 강력한 젊은 세대의 요구
(3) 평화애호와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교체할 의식의 감퇴
(4) 과격한 실력행사로 욕구불만과 정권교체 해결의식의 고조
(5) 영웅주의 사상의 유행병
(6) 정치적 불감(不感)의 증대
(7) 기회주의와 무사주의의 만연
(8) 민족자립을 위한 일대 개혁사상

3. 구(舊) 제정당(諸政黨)의 분석(생략)

4. 구정치인들의 동향

(1)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므로 그 대다수는 재기불능
(2) 자신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일정한 시까지는 정치생명을 유망한 인물들에게 인계하고 배후에서 암암리에 조종
(3) 공연히 정부시책을 비난
(4) 충성심을 가장하여 혁명 주체세력에 가담하려고 기도
(5) 계속적으로 위정자들을 비난

5. 혁명주체세력의 분석
(1) 군무에서 서로 맺어진 전우애와 상하관계에서 맺어진 동지들로서 단결력이 강하다.
(2) 장기간의 군대생활로 인하여 부패된 사회와 타협하지 않는 참신하고 양심적인 인물들이다.
(3) 동일한 이념, 즉 전장에서 얻은 애국지성으로 뭉친 애국신념 아래 모인 결속체이다.
(4) 어떤 구세력과 달리 감투와 이권싸움으로 인한 내부분열이 없다.

6. 혁명정부의 민족대계를 위한 설계도(일반적으로 정부 PR과 대동소이, 생략)

7. 정치활동허용 후 국내정치동향
(1) 정치활동 시기는 1963년 3월 1일부터 일 것이다.(박 의장 성명에 근거)
(2) 국회는 단원제로 의석은 120~150석이 될 것이며, 국회의원선거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할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중심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당정치를 구현할 것이다.
(3) 야당 구성
① 일시에 정당 활동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존립에는 허다한 난제가 놓여있다.

② 인재난: 윤보선, 변영태를 제외하고는 정정법(政爭法)에 해당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대사조에 의하여 지나간 사람들이다.

③ 자금난: 야당 육성에 필요한 자금이 야당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 재벌이 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신통한 재미를 못 보았으며, 또한 부정축재에 해당되어 있으므로 음성자본 이용이 불가능하다.

④ 이념의 불일치: 과거 정치인들은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이념 없이 모인 오합지중이다. 금후로는 혁명주체세력에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근시적 목표는 공통적일 것이나 여전히 이념의 공통은 없을 것이다.

⑤ 구정치인들은 이합집산, 뚜렷한 신념 없이 모이던 그들은 모두 과거 자기 정당을 위주로 정당 구성이나 운영을 꾀할 것이므로, 정당이 조직된다 할지라도 내부의 분열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질 것이다.

⑥ 봉쇄된 무소속입후보: 출마자격 구비를 위하여 우후죽순격으로 군소정당이 출현할지 모른다.

⑦ 국민대중의 정치무관심: 열병 같은 정치 붐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야당운동은 치명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여당 구성

① 혁명주체세력이 중심이 될 것이며 정당조직이 용이할 것이다.

② 정정법(政爭法)에서 구제된 사람은 대체로 동조할 것이다.

③ 여당을 구성하는 인물들은 현 최고위원, 5·16군사혁명에 직접 가담했던 현역군인, 혁명 후 각 부처 요직에서 혁명과업 수행에 적극 활동한 군인이나 군부출신자, 5·16혁명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였던 민간인들….

MTP는 『향지(向志)』의 교육내용에 있는 '5·16 군사혁명의 불가피성'을 '회원 교육과정 제1'로, '군사혁명을 지지하여야 할 의의'를 '회원 교육과정 제2'로 삼아 먼저 세뇌교육을 시행하였다. 세뇌교육을 완료한 후, 일반적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과 함께 특수교육에 들어갔다고 한다.

교육의 최종과정은 '정보수집교육'이었다. 이 교육의 개요는 ①정보의 중요성, ②이용할 수 있는 정보 출처, ③비밀활동의 원리 ④비밀연락 방법, ⑤비밀연락 시의 주의사항, ⑥비밀연락 장소, ⑦상대방의 역정보 수단, ⑧가면(假面) 등이었다.[81]

MTP의 핵심들은 『향지』에도 없는 여러 가지 특수교육을 받았다. 특수교육 내용은 '미행법, 접선법, 와이어 타는 법, 교살법, 교살을 자살로 가장시키는 법, 접선이 탄로났을 때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중간인을 처치하는 방법) 등'이었는데, 실지로 서울역 앞의 빌딩에서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MTP의 교육은 각 회별로 전세로 얻은 안가(安家)에서 행해졌고, 인근 주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특별한 안전 조치를 쓸 뿐더러 교육 장소는 회원 간에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다. 안가(安家)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골목길에서 깊숙이 들어가되 사방 출입이 가능한 곳에 정하였다. 안가(安家)의 출입이 제한된 것은 물론, 출입 시에는 호출 신호가 정해진 초인종이 사용되었고, 교육이 끝날 때까지 출입이 금지되었다.

회별 교육이 끝나면 각 회별로 회원을 선정하여 중앙에 소집, 중앙 교육위원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였다. 교육을 받는 회원은 상호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금지되고 반드시 가명이나 암호를 사용하게 했다. 인가된

---

81) 『동아일보』 김원기 기자는 '정보수집교육'에 대해 교육을 받은 회원의 노트를 토대로 취재했다고 한다. 그 내용이 얼마나 고약했으면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도리어 일반사회에 폐단을 끼칠까하여 약해두기로 한다"고 적고 있다(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 10월호(1964), p.188).

사항 외에는 회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금지되고, 교육받고 명령받은 사항 이외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억측이나 질문도 금지되었다.

3) 활동

교육과 훈련을 받은 회원들의 제1차적 의무는 정보활동으로 『향지』의 운영요강 제31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여론(일반)
② 국민의 혁명정부에 대한 여론과 요망
③ 혁명정부의 구체적인 시책에 대한 여론
④ 반혁명음모
⑤ 반국가적 행위
⑥ 간첩
⑦ 구정치인들의 동향
⑧ 반혁명세력의 동향
⑨ 지방 유지들의 동향
⑩ 선거에 대한 여론 및 준비사항
⑪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업체, 각종조합·각종단체의 장과 요원들에 대한 여론 및 시책에 대한 여론
⑫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과 그에 대한 여론과 선행(善行) 업적(業績)

앞에서 살펴본 『향지』의 내용에서 MTP의 활동시기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이란 다름이 아닌 『향지』 3호에 수록된 「국내정세 분석 강좌」 가운데 '7. 정치활동 허용 후 국내정치동향'에 나오는 대목들로 여기에서 MTP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활동 상황을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1) 정치활동 시기는 1963년 3월 1일부터일 것이다(박 의장 성명에 근거)"라는 대목은 MTP가 교육지침서 『향지』를 발간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 1963년 3월 1일 이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박 의장 성명'이란 1961년 8월 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발표한 〈정권이양 시기에 관한 성명〉, 이른바 '8·12성명'을 말하는데 이 성명을 통해 박정희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963년 초에 5·16으로 금지되었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1963년 이전에 신헌법을 제정·공포하며, 1963년 여름 정권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중심제로 하고, 국회는 100~120명의 단원제로 하며, 선거는 철저한 공영제로 한다고 하였다.[82] 이 같은 '박 의장 성명'이 나온 것이 1961년 8월 12일이므로, MTP가 활동을 본격화한 것은 1963년 3월 1일 이전이긴 하되, 1963년이 아니라 '박 의장 성명'과 가까운 시점인 1961년 아니면 1962년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7. 정치활동 허용 후 국내정치동향'의 (3), (4)항에 등장하는 '정정법(政爭法)'이다. 정정법, 즉 정치활동정화법(政治活動淨化法)은 기성 정치인의 정치참여를 막아 군부세력의 정치참여를 원활히 하고자 1962년 3월 16일에 공포한 소급법이다. 그렇다면 MTP가 활동을 본격화한 시기는 1962년 3월 16일 이후, 즉 공화당의 사전조직인 재건동지회가 결성되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김종필의 중앙정보부가 공조직인 민주공화당의 사전조직인 재건동지회 결성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한편, 비밀 사조직인 MTP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일보』 김원기 기자가 'YTP 활동'을 설명한 글은 이러한 사실을 강력하게 밑받침하고 있다. 즉 김원기는 그 글 말미에서 "YTP와 모(某) 당 사전조직과의 관계, YTP와 모(某) 당 의

8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1』(돌베게, 2008), p.372.

장과의 거래, YTP의 자금출처, YTP원(員)의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유력한 이야기가 입수되었으나 확인할 길이 없어 이는 생략한다"[83]라고 썼다.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를 당선시키기 위해 비밀단체인 MTP를 등록단체로 변신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YTP다. 하지만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운동전략은 1962년 5월 재건동지회 결성을 완료하던 시기에 '독수리 작전'이란 이름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작전'이 시작된 것은 MTP 시절이었고, MTP는 기존의 전국조직을 이용하여 평범한 국민을 가장하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암암리에 여론을 조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계몽회(啓蒙會), 회식, 사랑방 집회 등의 형태를 취했다. YTP는 이처럼 암암리에 행한 운동을 공식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이었다.

4) YTP 서울특별시위원회 회의록

필자는 중앙대생으로부터 입수한 YTP 관련 문건들 가운데 YTP 서울특별시위원회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하여 그 내용을 보도하게 했다. 『동아일보』에는 "YTP … 제2의 폭로"라는 제목으로,[84] 『조선일보』에는 "두 번째 폭로"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85]

이 YTP 서울특별시위원회 회의록은 YTP가 스스로 작성한 기록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963년 4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록한 이 '회의록'에는 조직, 간부 명단, 대학별 상황 등의 YTP 모습과 언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의 심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 『동아일보』에 실린

---

83) 김원기, "YTP〈청사회(靑思會)〉," 『신동아』 10월호(1964), p.190.

84) 『동아일보』, 김원기 기자는, 4월 23일의 학원사찰성토대회에서 YTP에 대해 처음으로 '폭로'한 이후 두 번째라 하여 "제2의 폭로"라는 제목을 붙였다.

85) 『동아일보』, 1964/05/21, 3면; 『조선일보』, 1964/05/22, 3면.

‘회의록’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 분석하기로 한다.

◀ 63년 4월 6일 15시 제2차 기획위원회

▷위원장=10일까지 5인조를 조직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대 성원 중에서 확실히 연락과 조직 확충에 공헌할 분이 십여 명 될 것으로 믿는데 회합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조직부장=건대(建大) 학생 포섭망이 거의 두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5인조 조직이 완료되면 그 후 각 과장 산하에서 또 5인조 조직을 형성해야 되므로 더욱 바빠집니다.[86]

◀ 63년 6월 16일 흐림 제1차 기획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위원회의 강화와 현재 처하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거보다는 더욱 강력한 교육과 훈련에서 오는 행동통일로써 결성대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임시로 선임된 본 위원장[87]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위원회에 시달하는 바이다.

◀ 63년 6월 22일 제2차 기획위원회

▷위원장=YTP가 표면화[88]한 후에 있어서의 우리들이 할 일은 기획위원들이 열심히 희생을 각오하고 일하는 것이다.

---

86) YTP는 각 부장, 차장 아래 5개 분과장(分科長) 조직을 하고, 각 분과장 산하에 또다시 5인조로 조직을 한 후, 그 5인조는 최종적으로 각각 3인조 조직을 하는 피라미드 조직이었다(『동아일보』, 1964/05/21, 3면 사진 참조).

87) 이 대목은 “위기를 타개”하고 “결성대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결성대회는 7월 25일의 청사회 결성대회를 말하는 듯하다.

88) “YTP가 표면화”한다는 말은 1963년 7월 25일의 결성대회를 거쳐 공식단체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YTP라는 명칭은 결성대회를 개최하기 이전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 명칭을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 63년 6월 29일 제2차 기획위원회

독찰 경과보고(대학별 동원 수[89]는 예상 수)

▷사업부장=(20명) 국학대학=30명/문리실과대학[90]=30명/경기대학=(불견)[91]/국제대학=3명

▷선전부장=(20명) 서울대=10명, 성대, 건대, 중앙신학대학.

▷조직부장=(40명) 중앙대=10명

▷운영부장=(25명) 연대, 동대

▷사무총장=(25명)

◀ 63년 7월 8일 17시 30분 제4차 기획위원회

▷위원장=결성대회를 앞두고 조직 확충에 총 매진할 것. 각 부를 가리지 말고 조직할 것. 예산 1만 원 방출. 비록 적으나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

▷동대 위원장 김광영=곤란 점. '파티'에 대한 질문을 할 때의 답변.[92]

▷사무총장=지하조직이라 주춤. 현재 불량아교육 실시, 계획=교육 '세미나'. 농촌계몽. 사회사업.[93]

◀ 63년 9월 30일 하오 5시

▷위원장=결성대회가 가능할 것 같다. 과거에는 중앙총회와 별개의 것과 같았으나 중앙총회와 결연을 갖게 되었다. 중앙총회에서 추

---

89) 7월 24, 25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YTP결성대회에 동원할 대학생 수를 말한다.

90) 명지대학교의 전신(前身).

91) '불견'이란 '不見', 즉 만나보지 못해서 결성대회에 동원할 수를 알 수 없다는 뜻인 것처럼 보인다.

92) 동국대 위원장 김광영이 말한 「파티」란 YTP, 즉 Youth Thought Party를 뜻하며, YTP가 무엇을 하는 단체냐는 질문을 받을 때 곤란하다는 말인 것 같다.

93) 사무총장의 발언내용을 풀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YTP가 조직 확충에 주춤대는 것은 비밀지하조직이기 때문이다. YTP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현재는 불량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 세미나, 농촌계몽, 사회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대답하라는 것이다.

진한 학생단체가 전국에 26개 있으나 통일하여 공동이익이 되자는 것. 그러나 청사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장 6명과 부장 3명을 두자는 것이나 총회에서 '비토'하여 버렸다. 창립총회를 9월 28일 결성을 갖는다. 청사회가 14명이 참석하게 되었다. 회장은 공화당에서 금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로 가기로 하였다.[94]

◀ 63년 10월 21일

① 조각 발표(부서개편)[95]

위원장=김병우/부위원장=박찬덕

사무총장=김복환/ 조직부장=이주용/ 감찰부장=조인식/

선전부장=차주원/ 조사부장=서경석/ 문화부장=차상관/

운영부장=유해조/ 계몽부장=박문의/ 개척부장=박승만/

학술원장=노준석

◀ 63년 10월 26일 3시

▷위원장=11월 12일까지 서울시지구 결성대회를 마치고 자금문제는 총회에 일임한다.[96] 지도위원[97]은 한 구에 2백 명 이상이 되어야

---

94) 서울특별시위원장의 이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정황과 문맥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인다. 이 시기의 YTP는 공화당의 청년조직으로 출발하려 하자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아 움츠러들고 있었고, 조정찬(趙正燦)이 총회장인 YTP중앙총회와 서울특별시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위원회 결성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양자 간의 갈등의 원인은 정확치는 않으나 총회장 조정찬과 지도위원 이(李) 대위 사이의 세력다툼 때문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력다툼에서 이(李) 대위 쪽 사람인 서울특별시위원장의 제의를 조정찬 측에서 거부하자 서울특별시위원장은 YTP서울특별시위원회 결성대회를 9월 28일 개최하고 YTP회장을 자금력 있는 공화당 출신으로 교체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는 것 같다. 즉 조정찬을 몰아내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툼에서 조정찬이 승리하여 오히려 지도위원 이(李) 대위가 밀려나고 정보부원 김(金)모가 2대 지도위원이 된다.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95) 위원장이 김병우로 바뀌는데 그는 조정찬 측 인물인 것 같다.

96) 조정찬(趙正燦)의 승리로 갈등이 해소되어 YTP서울특별시위원회가 중앙총회 산하로 들어갔음을 말하는 것 같다.

결성대회를 할 수 있고 서울에 조직이 미비하다고 말하고 있다.

▷조직부장=신문에 기재된 사항 때문에 앞으로 조직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

▷위원장=그 문제에 관해 너무 신경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동적부를 열람해서 우리 청사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로 좀 더 광범위하게 조직을 강화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 조직이 살 수 없다.

▷학술원장=결성대회 때의 뼈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일을 해본바,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 '맘모스' 조직을 강화하자.

▷선전부장=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신문에 얻어맞은 것이 조직에 지장을 준 것 같다.

구 책임자 선정 일자.

김복환=용산(28일) 마포(28일)/ 이주용=동대문(27일) 성동(29일)/
박문의=성북(28일) 종로/ 차주원·차상광=용산(28일)/
김병우=영등포(28일)/ 노준석=서대문(28일)

YTP 서울특별시위원회 회의록은 어법에 맞지 않게 기록한 부분이 많아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YTP가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YTP의 포섭대상이 주로 대학생이고 이들이 파고든 대학도 광범위해서 신학대학까지 손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학 위원장이나 단과대학 책임자에게 조직 자금을 제공까지 하면서 YTP가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선거에 활용할 목적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 목적은 학원 내에 박정희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

97) 정보부원인 김(金) 모 지도위원을 말하는 것 같다.

성하는 것과 반대세력의 동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행위, 즉 학원사찰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둘째, YTP가 피라미드 형태의 비밀조직이었다는 사실이다. YTP는 각 부장, 차장 아래 5개 분과장(分科長)을 두고, 각 분과장 산하에 여러 개의 5인조를 조직한 후, 각각의 5인조는 최종적으로 또다시 3인조를 조직하는 피라미드조직이었다. 모든 연락은 종적(縱的)으로만 하고 횡적(橫的) 연락은 철저히 금하여, 조직원 상호 간에도 누가 회원인지 알 수가 없게 하였다. '포섭', '조직 확충', '정신적 주입', '독찰(督察)', '대학책(責)', '구(區) 동지' 등 회의록에 나오는, 이들이 사용하는 말로만 미루어도 YTP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알 수가 있다.

셋째, YTP 즉 청사회라는 조직 명칭이 1963년 7월 25일 결성대회 이전부터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회의록에는 6월 22일 제2차 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이 "YTP가 표면화한 후에 있어서의 우리들이 할 일은 …"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YTP가 표면화한다는 것은 공개되지 않았던 YTP가 공개단체로 등장한다는 뜻이니, 그 이전에 이미 YTP가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또한 회의록 내용을 발췌해 보도한 『동아일보』 1964년 5월 21일자 3면의 회의록 사진을 보면, 표지에 '회의록/YTP 서울특별시위원회'라고 적혀있다. 이는 회의록 작성을 시작한 1963년 4월 4일에도 조직 명칭이 YTP였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언제부터 MTP, 즉 '문맹퇴치회'라는 명칭을 버리고 YTP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넷째, 회의록은 YTP 내부에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갈등은 YTP 중앙총회 회장 조정찬과 YTP 지도위원인 이(李) 대위 사이에 있었고, 이 갈등에서 밀린 이(李) 대위 계열의 YTP서울위원장이 경질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회의록에 나타나고 있다. 4월 4일자 회의록을 보면 서울위원장이 이성지(李成志)인데, 6월 16일자에는 임시위원장이 등장하고, 10월 21일에는 김병우가 위원장으로 등장한다. 이 같은 위원

장의 잦은 교체는 두 사람 사이에 있던 힘겨루기의 결과일 것이다.

다섯째, YTP의 태생적 약점인 지하조직, 즉 비밀조직이라는 사실이 조직 확충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7월 8일자 회의록에, 동국대 위원장인 김광영이 YTP 성격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무어라 답변을 할지 곤란하다고 하자, YTP가 지하조직이라서 조직 확충이 주춤거리고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을 충고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야당과 언론에 의해 YTP가 공격의 표적이 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YTP 지도부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회의록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10일자 회의록에 감찰부장이 "우리의 전망이 암담"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0월 19일에는 문화부장이 "조직 확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운영부장은 "신문에서 받은 타격"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10월 26일자 회의록에는 조직부장이 "신문에 기재된 사항 때문에 앞으로 조직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여론의 악화로 인해서 YTP 조직이 무너져가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회의록이 1963년 10월 26일자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YTP 서울특별시위원회는 이 시점에서 조직이 거의 와해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4. 결어(結語)

이제까지 YTP의 탄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필자의 기록 발굴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파헤쳐 보았다. 1960년 8월 6일 비밀단체

KKP(구국당)로 출발하여, 5·16을 계기로 MTP(문맹퇴치회)로 개명하여 중앙정보부 프락치 비밀단체로 전락하였고, 공화당의 공식 청년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1963년 7월 25일 YTP(청사회)로 재차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10월 5일 야당 대통령후보에 의해 YTP의 존재가 폭로되어 헛된 꿈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조직마저 와해되고, 1964년 4월 23일 '학원사찰성토대회'를 통해 필자가 그 구체적 실체를 조사, 폭로하자 YTP는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 YTP는 KKP로 시작한지 4년가량이 지났지만, MTP라는 이름의 중앙정보부 프락치 비밀단체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년 남짓한 기간에 불과했다.[98] YTP는 이 짧은 동안의 활동으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이다. 그러나 YTP를 지원한 중앙정보부의 고위층은 누구였고 언제부터였으며 지원한 자금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여 프락치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필자가 밝혀낸 것 이상의 사실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진 채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박정희 독재가 18년 5개월 10일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자행되었고, 그 이후의 권력 역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부세력이 장악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YTP 간부들은 정체를 감추고 군사정권에 오랫동안 기생하여 나름대로 승승장구한 마당에 젊은 시절의 부끄러운 일들은 애써 발설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YTP의 부회장이었지만 이를 감추고 흥사단 이사장까지 지낸 김종림(金鍾林)[99]의 이력이 그 좋은 예이다.[100] 김종림은 4·19혁명 공로자로 '건국공로포장'을 받기까지 했다.

---

98) MTP라는 이름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 것은 공화당 비밀 사전조직이었던 재건동지회 결성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재건동지회가 결성된 것이 1963년 5월이었고 MTP가 변신하여 YTP로 결성된 것이 1964년 7월 25일 이었으니 MTP로 중앙정보부 프락치 역할을 한 것은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99) 김종림(1936/9/5~2005/9/30)이 YTP 부회장이었다는 것은 성균관대학 출신으로 6·3동지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오성섭(吳聖燮)이 증언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100) YTP 부회장 김종림은 재건국민운동 서울시지부 지도과장(1961~1963), 전국청년단체연

이에 더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YTP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나이이다. YTP 간부들은 대체로 고인이 된 김종림(1936년생)과 같은 또래라서 생존한 사람이 많지 않을 테고 시간이 감에 따라 기억력이 쇠퇴할 터이니 말이다.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이들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여 현대사에 비어 있는 틈을 하루빨리 메워주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김형욱과 중앙정보부가 자행한 필자에 대한 치졸한 '복수'다. 1964년 4월 23일 필자는 '학원사찰성토대회'를 통해 중앙정보부의 학원사찰을 조사, 폭로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중앙정보부를 공격한 것은 필자가 최초였다. 여기에 더하여 5월 20일 사실상 박정희의 장례를 치른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조사(弔辭)까지 낭독했으니 김형욱의 복수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으리라.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김형욱이 필자를 납치, 고문하도록 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건이 예상외로 큰 파장을 일으켜 현역 정보부원 세 명이 구속되고 자기도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김형욱과 중앙정보부의 필자에 대한 복수는 계속 이어졌는데,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자기들의 프락치 단체였던 YTP를 엉뚱하게도 필자 등에게 떠넘겨 필자 등이 '정보부의 프락치' 또는 '전직 YTP'였던 것으로 폄하해 버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다.

그래서 김형욱은 자신의 회고록 곳곳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회고록에서 중앙정보부의 프락치 조직 YTP에 대하여 부하 국장들이 언급하자, "YTP란 도대체 뭐요? 난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 …"[101]라며, YTP에 대

합회장(1963~1966), 공화당 정치훈련원 사감교수(1966~1969), 서울신문사 영업·관리, 상무이사(1984~1989)를 거쳐 흥사단 이사장(1994~1998)에 취임한다. 흥사단 이사장이었던 기간에도 충청매일신문 사장(1995),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199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1998)을 지내는 등 경력이 휘황찬란하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YTP였다고 밝힐 리야 없지 않은가?

101) 이처럼 YTP에 대해 자기는 짐짓 모른 체하며, 책임을 김종필에게 떠넘기면서도 중앙정보부와 관계가 있음을 시인하는 대화로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그게 우리 정보부와 관계가

해 전혀 모르고 있는 체하며 딴전을 부리고 있다. 필자에 대해서는 "서울문리대 정치학과 4년생인 송철원(宋哲元)이란 학생인데 경기고교를 나온 수재지요. 이 녀석이 옛날에는 YTP다 해서 저희들 말도 고분고분 듣고 정보도 물어다주고 하더니, 요사이는 민비연 녀석들과 어울려 데모에 앞장을 서질 않겠어요"[102]라고 제3국 국장 전재구(全在球)가 말했다며, 필자를 '전직 YTP'로 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송철원 납치·고문사건'은 김형욱 자기가 시켜서 한 일인데도, "당신 지금이 어떤 시국인지 아오? 그렇게 정치적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제3국장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왜 애들을 잡아다 조사할 것 있으면 조사나 할 것이지 때리긴 왜 때리냔 말이오!"[103] 라고 전재구 국장을 야단쳤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104]

김형욱은 1979년 10월 불귀의 객이 되어버려 여기서 복수를 멈추지만 중앙정보부는 계속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 필자는 1975년 교수 재임용이란 명분으로 건국대 교수직에서 내쫓겼고, 1987년 교수직에서 내쫓겨진 후 취직한 학원에서도 쫓겨났다.

이렇게 복수당한 일들은 2011년 4월 25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신원(伸寃)되었다. 세기가 바뀌고 나서야 찾아온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다.

있긴 있는 단체요?" "네, 부장님. 김종필 부장 시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럼 관계가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전연 관계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김형욱·박사월, 『김형욱 회고록-제II부 한국중앙정보부』(도서출판 아침, 1985), p.75).

102) 김형욱·박사월, 앞의 책, pp.113-114.

103) 김형욱·박사월, 앞의 책, pp.114.

104) 야단맞았다던 3국장 전재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김형욱은 "며칠 동안 간부회의에서 송(宋)을 혼내 본때를 보이라고 채근했다. 그래서 김 모 씨(장군 출신)가 명령대로 실행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시끄럽게 되자 김형욱 부장은 다시 간부회의에서 '누가 그런 짓 시켰길래 시끄럽게 만들었느냐'고 되레 밑을 탓하"였다는 것이다(김충식, 『정치공작사령부 KCIA-남산의 부장들 (1)』(동아일보사, 1992), p.118).

명예회복(사안번호 제13034호)

신청인 송철원(1942.4.3 생)은, 1964년 3월 24일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재학 중 대일 굴욕외교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자로,

1. 1964년 5월 20일경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주도, 같은 해 6월 3일경 한일회담반대투쟁 등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당국의 수배를 받고 도피생활을 한 사실을 이유로, 1964년 6월 30일 위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사실,
2. 1971년 10월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위수령이 선포되고 1971년 10월 15일 자 『민주전선』과 월간지 『한반도』 11월호에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투고하여 지명수배된 사실을 이유로, 1975년 건국대학교 강사직에서 해직당한 사실,
3. 1987년 6월 10일 대통령직선제를 위한 6월항쟁에 가담하고 같은 해 대통령선거에서 전국 학원 강사들을 모아 야당 후보인 김영삼 씨를 지지한 사실을 이유로, 서울 신설동 소재 청산학원 영어강사직에서 해직당한 사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학사징계 및 해직된 것으로 인정함.

보상(사안번호 제13035호)

신청인 송철원(1942.4.3 생)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4학년 재학 중,

1964년 5월 20일 위 대학교 문리과대학 운동장에서 개최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에서 "시체여 너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등의 내용의 조사를 낭독 후 피신하였으나, 같은 달 21일 00:20경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자칭하는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당시 남산에 소재한 중앙정보부로 추정되는 장소로 끌려가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풀려난 것과 관련하여,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서울철도병원(현 중앙대부속병원)에 입원하여 늑골(갈비뼈) 골절과 오른손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폐결핵을 앓고 있는 사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 및 후유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인정함.

투고: 2012.4.26